

한국어 교육에서의 민속극 활용 방안 연구

탈춤을 중심으로

양지선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한국어강사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한국어학 전공
calliyang@hanmail.net

- I. 머리말
- II. 한국어 교육에서 민속극 교육의 가치
- III. 탈춤을 활용한 한국어와 문화 교육 방안
- IV. 맺음말

I. 머리말

원활한 의사소통을 추구하는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 교육은 독립된 영역의 교육이 아닌 한국어를 향상시키기 위해 함께 언어 교육과 병행할 수 있는 문화 교육을 추구하고 있다. 언어와 문화가 함께 조화를 이루길 원하는 교육적 목표에 적합한 문화 교육이 민속극을 활용한 교육이라 생각한다. 민속극은 한국문화에 호기심을 지닌 학습자에게 숙달도에 따라 다양하게 내용을 제시할 수 있고, 특별한 이유를 지닌 나라를 제외하고¹⁾ 가면은 세계적인 분포를 보이기에 학습자에게 쉽게 접근하면서 이해를 돕고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다.

탈춤과 관련된 연구가 민속학, 국어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며²⁾, 한국어 교육에서도 탈춤을 활용한 연구가 문화 교육과 관련하여 많은 양은 아니지만 다양하게 활용되어 연구되었다. 양민정(2008)은 탈춤은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문학적 감동과 함께 한국의 전통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사회 의식적 주제, 다양한 인간형, 연행적 구성요소 등을 파악하는 데 효율적인 교육 자료라 하며 탈춤의 한국문화적 요소를 살펴 탈춤을 활용한 한국어 문화 교육의 세계화 방안을 제시하였고, 김영순·정미강(2007)은 스토리텔링 기법을 통해 은율탈춤 속에 드러난 한국의 문화적 요소를 한국문화 학습자들에게 효과적으로 교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김영순·김정은(2005)은 비언어적 의사소통 접근을 통해 한국 탈춤, 특히 봉산탈춤 ‘노장과장’의 비언어적 상징과 의미체계를 분석하였는데, 탈춤의 춤동작과 몸짓을

1) 가면은 아시아·유럽·아프리카·아메리카·오세아니아·멜라네시아 등 전 세계에 걸쳐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 다만, 이슬람교의 코란은 인간이나 동물의 형상을 꾸며서 사연하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에, 아라비아, 북동 아프리카, 발칸을 포함하는 근동지역과 이슬람교의 영향을 받은 북아프리카에서는 가면을 사용할 수 없었다. 전경옥, 『한국가면극 그 역사와 원리』(열화당, 1998), 49쪽.

2) 박진태(1998, 1999, 2006)는 민속극 분야에서 민속학 교육으로서의 민속극, 민속극의 예술성, 속죄양과 희생양 등에 대하여 연구하였으며, 허용호(2009)·김기형(2009)·김수남(2008)·이영배(2008)·이선형(2008)은 민속극의 전승과 특징, 현대적 흐름 등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재숙(2003)·김형식(2002, 2004)은 한국의 민속극과 인도, 유럽의 민속극에 나타난 요소를 비교하였고, 박경립(1986)은 전통극 무대의 공간적 특성에 대한 연구를 하여 건축에서도 민속극의 특성을 활용한 연구가 있었으며, 김완배(2006)는 하회탈의 조형미와 제작과정을 통해 조형에서의 민속극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이 밖에도 복식, 메이크업, 관광 등 여러 분야에서 민속극의 요소를 활용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활용하여 비언어적 의사전달을 문화 교육에 활용했다는 것은 참신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민속극을 활용했을 경우, 한국인의 사고와 가치관을 중심으로 한 정신문화와 삶의 방식, 한국인의 가치관과 갈등구조에 대한 학습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으며, 민속극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의 갈등구조, 색깔의 상징성과 탈 모양을 통해 한국인의 사회적 흐름, 사회구조와 한국인이 의미를 두고 있는 한국인의 특징을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다. 현재 14종목의 탈춤이 국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탈춤을 한국어 교육과 연계하여 교육할 경우, 다양한 문화 교육과 더불어 한국어 어휘구조의 특징까지 폭넓게 관련지어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민속극을 민속학적 입장에서 보면 폭넓고 깊게 연구하여 한국어 교육에 적용해야 하지만, 한국어 교육의 현실과 상황이 외국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의 특수한 상황을 적용시켜 가볍게 다루고자 한다. 특히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 교육은 ‘깊고 좁은’ 교육이 아니라, ‘넓고 다양한 문화를 낮게’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³⁾ 민속극을 활용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에 접근하고자 한다.

II. 한국어 교육에서 민속극 교육의 가치

민속극은 가면극, 꼭두각시놀음, 무극, 발탈 등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극문학의 특징을 잘 갖추고 있다. 가면극은 가면을 쓰고, 꼭두각시놀음은 인형을 사용하며, 발탈은 발에 가면을 씌워 인형처럼 움직이게 함으로써 가장하는 것이다. 가면극은 대표적인 민속극으로, 일찍이 1920년대에 학문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며, 1970년대 대학가에서의 가면극 공연은 대단한 열풍을 일으켜 가면극 전승의 활성화에 큰 몫을 담당하였다.⁴⁾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민속극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가면극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교육 방안을 마련해보고자 한다.

오늘날 ‘탈춤’이라고 하는 것은 전래되어온 가면극 모두를 말하며,

3)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요소는 광범하게 고려하되, 일반성·보편성을 고려하여 너무 전문적인 깊은 지식에 무게를 두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으며, 문화 교육에 대해 ‘넓은 문화를 낮게’ 교육하는 것이 외국인 교육과 관련한 문화 교육의 기본 방향이라고 하였다. 성기철, 「한국어 교육과 문화 교육」, 『한국어교육』 제12권 2호(2001), 124쪽.

4) 전경옥, 『한국 가면극과 그 주변 문화』(월인, 2007), 116-118쪽.

1970년대만 하더라도 ‘가면극’은 학술 용어로 사용되었고, ‘탈춤’은 특별한 경우에만 한정되어 있었다. 본시 탈춤이란 해서지방인 황해도 일원에 분포된 가면극만을 가리키던 말이었는데,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여러 갈래로 불리던 가면극들을 한데 뭉뚱그려 ‘탈춤’이라 부르게 되었다.⁵⁾ 한국어 교육에서는 민속극의 대표적인 가면극이 어떤 방법으로, 그리고 어떤 용어로 학습자들에게 제시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탈춤’과 ‘가면극’에 대해 언급되어 있는 한국어 교재를 살펴보았다.⁶⁾

표1-탈춤에 대한 한국어 교재 용어

대학 기관	교재	단원	용어
건국대학교	한국어 2	4과. 여가 생활	탈춤
	한국어 4	13과. 사물놀이	탈춤
경희대학교	한국어 초급 2	10과. 종합연습	탈춤
연세대학교	연세한국어 3	제1과. 취미생활	탈춤
	연세한국어 4	제9과. 명절과 축제	가면극, 관노가면극
	연세한국어 5	제6과. 대중문화와 예술	탈춤, 봉산탈춤
	연세한국어 6	제7과. 소중한 문화유산	가면극, 마당극
이화여자대학교	말이 트이는 한국어 2	제1과. 첫 출근	탈춤
서강대학교	서강한국어 5B	제1과. 대중문화	탈춤
성균관대학교	배우기 쉬운 한국어 5	제2과. 서울의 문화를 즐겨요!	봉산탈춤

연세대학교를 제외한 대부분 대학교의 한국어 교재에는 ‘탈춤’ 또는 ‘봉산탈춤’이라는 용어로 학습자에게 제시하고 있고, 짧은 지시문에서 한국의 탈춤에 대해 설명하거나 용어만 언급되었으며, 취미생활이나 한국의 전통 춤과 관련하여 탈춤을 간단하게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연세대학교 교재에서는 각 단계에서 단원의 주제에 따라 탈춤에 대해 언급하고 설명을 제시하고 있으며, 단계가 올라갈수록 폭넓은 지역의 축제에서 사용되는 민속극의 용어를 제시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연세한국어 3』에서는 동아리 활동에 대해 언급하면서 ‘탈춤’이라는 용어를 학습자들에게 제시하고 있으며, 『연세한국어 4』에서는 강릉의 단오축제

5) 차용준, 『전통문화의 이해』(전주대학교 출판부, 2000), 271쪽.

6) 현재 고급단계까지 출판되어 있는 서울 소재의 대학 교재 중에서 ‘탈춤’이 언급되어 있는 한국어 교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축제기간의 주된 행사인 가면극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다양한 여러 나라의 축제와 함께 ‘관노 가면극’, ‘가면극’의 용어에 대한 언급과 함께 춤의 유래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학습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치용무’ 등 여러 가지를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연세한국어 5』에는 봉산탈춤에 대한 용어만 제시되어 있고, 『연세한국어 6』은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는 주제를 통해 안동의 하회마을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하회탈에 대해서는 용어만 언급되어 있었다. 교재를 분석한 결과, 연세대학교 교재가 탈춤에 대해 가장 폭넓게 제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나, 대부분 설명 위주였으며, 탈춤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한국어와 문화 교육적 요소가 제시되지 않아서 약간의 아쉬움이 남았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한국어 교재에서 주로 제시되고 있는 명칭은 ‘탈춤’이 가장 많았으며, ‘봉산탈춤’이라는 명칭으로 제시된 교재도 살펴볼 수 있었다. 봉산탈춤은 황해도 지방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산대도감극 계통의 해서 탈놀이의 하나로서 조선시대부터 매년 연중행사로써 연희되어 온 대표적인 탈춤이다.⁷⁾ 봉산탈춤은 1967년 중요무형문화재 17호로 지정되어 보존 및 전수되고 있으며, 한국인에게 그 명칭이 많이 알려져 있고, 다른 탈춤에 비하여 춤사위가 활발하고 흥미롭기에 학습자에게 알리고 가르친다면 한국어 문화 교육으로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 예술의 여러 가지 영역 가운데 탈춤만큼 민중의식을 충실하게 표현하고 민중의 처지에서 사회를 비판하는 데 과감한 태도를 보인 것은 없다.⁸⁾ 따라서 특정 계층이 아닌 전반적인 한국인의 의식을 이끌어온 민중의 갈등을 보여주는 탈춤을 통해 한국 시대상의 흐름, 사회변화에 따른 갈등요소, 사회에 대한 인식 등을 이해할 수 있으며, 현대와 비교하여 어떤 가치관이 과거에 존재하였는지, 어떤 가치관이 저변에 남아 현대 문화와 충돌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탈춤은 춤을 통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저절로 신명과 교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에게 지루함을 주지 않는다. 또한 흥미와

7) 황해도 해서지방 탈춤의 종류는 봉산탈춤·강령탈춤·은율탈춤이 있고, 봉산탈춤은 다른 탈춤에 비하여 춤사위가 활발하며, 경쾌하게 휘뿌리는 장삼 소매와 한삼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펼쳐진다. 우리마당 터, 『탈춤1, 민속학술자료 총서』(도서출판 놀이마당 터, 2001), 14쪽.

8) 조동일, 『탈춤의 원리 신명풀이』(지식산업사, 2006), 16쪽.

더불어 자연스럽게 탈춤에서 드러나는 한국 문화를 자신이 직접 춤을 추면서 즐길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인과 일체감을 느낄 수 있고, 그 안에서 한국인의 공동체적 힘을 이해할 수 있다.

한국어 교육에서 탈춤을 활용한 교육은 읽기, 문화 설명, 지시문에 간단하게 탈춤의 명칭을 위주로 한 짧은 설명만 제시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탈춤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은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세계화에 따른 변화로 인해 한국어 교육을 원하는 학습자의 수가 늘어나고 한국어를 구사하는 수준도 높아짐에 따라 이제 한국 문화 교육을 향한 한국어 교육의 시야도 넓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기존에 나와 있는 한국어 교재처럼 탈춤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이 탈춤의 언어, 춤동작, 탈의 모양, 색깔을 통해 한국인의 저변에 깔려 있는 민족의식과 갈등, 가치관, 생활방식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탈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언어 교육과 문화 교육을 찾아내어 학습 방안을 마련한다면, 웃으면서 춤을 통해 흥미를 느낌과 동시에 한국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교육에서 탈춤을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해야 하며 학습에 적용하기 위한 교육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탈춤의 다양한 교육요소를 한국어 교육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선별하여 한국의 전통예술의 산물인 탈춤의 가치를 알리고 한국인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I. 탈춤을 활용한 한국어와 문화 교육 방안

한국어 교육에서 한 민족의 사고방식, 가치관, 표현 등을 구체적이고 전형적으로 살필 수 있는 자료가 전통문학에 가장 응집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통문학을 활용한 한국어 문화 교육은 그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⁹⁾ 한국의 탈춤은 민족의 혼과 정신,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다양한 문화 교육을 하기에 적합한 요소를 많이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탈춤에서 제시되는 언어적 유희 표현을 통해 학습자들의 숙달도에 맞게 어휘교육을 할

9) 양민정, 「한국어 문화 교육의 세계화와 탈춤의 활용방안 연구」, 『세계문화비교연구』 제24집(2008), 260쪽.

수 있으며, 문화 교육 또한 단순히 교사의 설명에만 의존하는 설명식 수업이 아닌, 학습자의 참여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의 민속극 중에서 ‘탈춤’을 중심으로 하여 한국어 교재에서 다루지 않은 한국어 어휘 교육과 문화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활용할 수 있는 요소를 이끌어내어 교육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1. 어휘 교육

탈춤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한국어 어휘 교육과 연결 가능한 학습 내용을 살펴본다면, 동음이의어·유의어·속담·수수께끼·연어를 들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고급 이상의 학습자에게 반복법, 대조법, 반어법, 과장법, 의성·의태법, 직유법 등의 표현 기법을 통하여 고급스럽고 풍부한 언어 표현을 구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¹⁰⁾ 탈춤의 대사에서 제시되는 동음이의어와 유의어의 경우, 탈춤의 특징인 해학적이고 풍자적인 효과를 적절히 제시해주고 있으나 이를 활용하여 한국어 어휘 교육을 하려면, 우선적으로 탈춤의 대사 내용을 학습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현대적인 언어로 쉽게 풀이해서 제시해야 하는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한국어 교육에서 탈춤의 언어적 유희를 어휘 교육과 연계하여 교육한다면 고급 단계에서도 그 교육적 내용이 쉽게 전달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학습자의 숙달도 단계에서 학습하지 않은 어휘를 제외하고 동음이의어와 유의어, 속담, 연어를 가볍게 사과, 배, 깎다 등 초급부터 단계적으로 쉽게 익힌 어휘를 중심으로 학습자에게 무리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제시한다면 언어적 유희를 통한 흥미와 어휘 교육의 단계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동음이의어와 유의어 교육의 경우, 한자권과 비한자권을 나누어 학습을 시키는 것이 수업 방향이나 능률적인 학습 면에서 효용성이 높을 것이다. 한자권에게는 더욱 많은 양의 동음이의어와 유의어 교육을

10) 봉산탈춤에 제시된 언어사용 수사법의 빈도수를 살펴보면, ① 반복법(41회), ② 열거법(31회), ③ 의성·의태법(24회), ④ 은유법, 직유법(각 12회), ⑤ 대조법(7회), ⑥ 과장법(6회), 점층법(반복적 점층 제외)(2회), 인용법(2회), 점강법, 역설법(각 1회)이 사용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석규, 「봉산탈춤의 언어 사용 연구」, 『인문언어』 제6집(2004), 286-287쪽.

하여 어휘의 양을 늘리고 학습자 스스로도 유의어와 동음이의어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학습자 참여교육을 제시한다면 흥미로우면서도 재미있는 게임을 하는 것 같아 자신도 모르게 어휘 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느낄 것이다.

속담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비유를 통해 한국인의 삶과 가치관, 관습의 여러 가지 다양한 면을 드러내는데, 이것은 속담이 그 사회 민족의 오랜 역사와 함께 걸어온 삶의 모습과 민족의 정서, 지혜와 교훈, 그리고 풍자가 함축된 말로써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어온 소중한 언어 유산이자 문화 유산이기 때문이다. 또한 속담을 통하여 한국의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고, 언어 공유자의 사고방식이나 행동 양식이 담겨 있어서 외국인 학습자에게 한국인의 가치관과 더불어 한국의 문화를 언어로써 학습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봉산탈춤에서 제시된 언어적 유희를 활용해 학습자의 숙련도에 따른 단계별 학습 방안을 구성해보면 표2와 같다.

표2-탈춤을 활용한 어휘 교육

	교육 방안
동음이의어 유의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의 어휘를 이용하여 문장을 만들어보시오.(단계에 따라 어휘수준 높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 2) 사과 3) 타다 4) 깎다 예) - 나에게 사과를 하라고 했더니 왜 (먹는) 사과를 줍니까? (중급·고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먹는) 배를 보니까 친구의 배가 생각난다. - (먹는) 배 따러 (타는) 배 타고 가요.
속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된 속담을 통하여 어휘와 의미 파악하기 (중급·고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불이랬더니 2) 무른 메주 밧듯하고 3) 성깔도 급하기도 급하여 가랑잎에 불붙기로구나.
언어 비유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 발음과 관련된 표현을 통해 '탈'을 사용한 표현의 의미를 배우고 익히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탈이 났다. (초급·중급·고급) 2) 배탈이 났다. 3) 아는 게 탈이다. 4) 밤새 탈이 없었느냐.
표현 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어법, 반복법, 열거법, 직유법, 의성·의태법 등은 대부분의 탈춤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표현기법을 통한 어휘 확장을 늘리도록 한다. (고급) • 표현기법을 설명하고 탈춤의 내용을 읽은 뒤, 제시된 표현기법을 찾아보기 • 색채를 표현해주는 의성·의태어 비유표현을 보고 친구들의 얼굴 색깔과 옷 색깔에 대해 표현해보기 • 직유법, 은유법을 사용하여 친구들과 음식의 맛 비유해보기

2. 문화 교육

전통문화는 한 민족의 정서와 일상생활이 그대로 담겨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의 가치관과 갈등, 사고방식을 전통문화를 통해 학습할 경우,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한국인들의 행동 양상에 대해 어느 정도 문화적 이해 안에서 학습자들의 문화와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전통문화 중에서 가면극은 우리에게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조상들의 슬기와 재치를 알 수 있게 하고, 나아가 긍정적 비판의식을 배워 모순적인 현실을 살아가기 위한 올바른 시각을 정립시켜 주는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하며, 우리 민족 특유의 해학성이 살아 숨쉬는 가면극은 민족 고유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과 동시에 세계 속에서도 우리 민족의 특수성을 부각시킬 것이다.¹¹⁾

한국어 교육의 방향은 국어 교육과는 달라야 하지만 국어 교육의 과정 안에서 어느 정도 통일성과 조화를 이루며 교육의 방향이 제시되는 것이 좋다. 그런 과정에서 본다면 현재 7차 교육과정에서 가면극 교육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멀티미디어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어 교육에 다양한 시각적 자료를 활용하여 봉산탈춤을 학습자에게 보여주고 문화 교육을 한다면 이해하기가 더욱 수월할 것이며, 원활한 문화 교육이 가능할 것이라 본다.

1) 갈등관계

탈춤은 신분, 종교, 가족관계에서 생기는 갈등을 중심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탈춤에서 보이는 갈등은 서민이 숨을 쉬던 시대에 주된 갈등의 요인이 된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에 이러한 갈등구조의 흐름을 통해서 한국인의 시대적 흐름에 따른 신분구조 및 사회구조에 따른 갈등과 그 원인, 갈등을 일으킨 대상에 대한 서민들의 마음과 의식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 봉산탈춤에서 보이는 갈등은 양반과 서민의 갈등, 파계승에 대한 풍자, 가부장적 사회 모순의 갈등에 대한 민중들의 삶의 애환이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가지고 있는 요소이기에 서로의 갈등관계

11) 허지윤, 「가면극 지도 방안 연구 - 봉산탈춤을 중심으로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5), 2쪽.

에서 드러난 모습을 통해 민중들의 생각과 소망을 이해할 수 있으며, 진솔한 민중의 모습을 느낄 수 있다.

갈등구조는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사회구조와의 갈등, 종교와의 갈등, 가족 간의 갈등, 교육제도와와의 갈등, 가깝게는 주변 친구들과의 갈등까지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갈등관계가 없는 삶은 존재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탈춤을 활용하여 과거 한국의 갈등구조를 확인해보면서 학습자 나라에서는 과거에 어떤 갈등구조가 있었는지 서로의 의견을 나누어보고, 현재 자신들이 가장 불만을 가지고 있는 대상과의 갈등에 대해 역할극을 통하여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운 방법이라 본다.

중·고급 학습자들에게 국가별로 팀을 구성하도록 한 뒤, 학습자 모국에서 주로 발생하는 갈등을 표현하게 한다면 학습자 문화에서 중심으로 일어나는 갈등관계를 이해할 수 있고, 한국의 상황과 비교하면서 서로의 문화적 관점을 비교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학습자들끼리 유학생활동을 하면서 겪는 갈등요소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함으로써, 서로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배려할 수 있는 원활한 교류의 시간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표3-탈춤을 활용한 문화 교육(갈등관계)

내용	교육 방안	단계
갈등 구조	1) 탈춤에서 제시된 갈등요소를 학습자들이 스스로 찾아보기 (신분 갈등, 남녀 간의 갈등, 종교 갈등 등)	중·고급
	2) 현대 사회에서 보이는 갈등관계의 요소에 대해 발표하기(국가별, 짝활동) (국가 간의 갈등, 사회 문제에 따른 갈등 등)	중·고급
	3) 학습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갈등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기(짝활동) (이성 문제, 부모와의 문제, 학업 문제, 친구 문제 등)	초·중·고급

2) 신명문화

한국 탈춤의 특징은 서로 다른 생각, 신분, 입장에서 생기는 갈등을 지속시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풍자와 해학을 통한 웃음으로 갈등을 비판하고 신나게 춤을 추면서 모두 함께 어우러져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다. 이러한 갈등해소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신명풀이’라고 한다. 한국인의 정서는 ‘恨(한)’과 ‘神明(신명)’이라 할 수 있는, 한쪽으로

치우친 정서가 아니라 함께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가는 정서이다. '신명'은 사회적으로 맺힌 응어리, 고민, 갈등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밖으로 표출되어 흥겨움을 느끼는 것으로, 갈등관계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신명풀이를 통해 사회를 풍자적으로 비판하며 갈등관계와 화해하여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한국 탈춤은 희극만 있고 비극이 없으며, 갈등이 고조되면 비극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야 하는데 마지막은 항상 희극으로 마무리된다. 이것은 한국인이 슬픔이나 극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니고 있는 갈등과 화해하여 해소하고 풀어내려는 성향을 드러낸 것이다. 한국인은 가슴에 맺힌 응어리, 恨(한)이 많이 맺힌 민족으로 탈춤을 통해서 맺힌 것을 시원하게 발산하며, 보는 사람과 춤을 추는 사람이 한데 어우러져 춤을 추면서 통쾌한 기쁨을 느낀다.

'신명풀이'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주고받으면서 해야 풀이를 하는 보람이 있다. 자기의 '신명'을 남에게 전해주고 남의 '신명'을 자기가 받아들여, 두 신명이 서로 싸우면서 화해하고 화해하면서 싸워야 신명풀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 성과가 더 커진다. 대립이 조화이고, 조화가 대립이며, 싸움이 화해이고, 화해가 싸움인 것이 천지만물의 근본이치인 것을 '신명풀이'의 행위에서 절실하게 경험한다.¹²⁾ 탈춤에서 신명풀이는 춤과 '얼쭈', '잘한다' 등의 추임새에서 드러나며, 탈의 표정, 옷에서도 사회를 풍자적으로 비판하며 갈등을 해소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한국의 탈춤에서 마지막에 춤을 추며 갈등을 해소하는 '신명풀이'가 있다면 다른 문화에서는 '카타르시스', '라사' 등의 용어로 연극의 미학을 설명할 수 있다. '카타르시스'는 갈등을, '라사'는 조화를 근본으로 한다면, 신명풀이는 갈등에서 조화로 넘어갈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¹³⁾, 학습자들은 한국의 탈춤에서 보여주는 '신명풀이' 문화에 대해 모국의 문화에서 접할 수 있었던 용어와 비교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한국인의 탈춤에서 보이는 '신명문화'에 대해

12) 조동일, 앞의 책, 474쪽.

13) '카타르시스'는 고대그리스 시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이며, 고대그리스 연극의 원리이다. '라사'는 인도 사람 바라타가 지었다고 전하는 책 『나티 아사스트라』에서 유래한 개념이며, 신명풀이는 문헌에 올라 있지 않고 구두로 전해진 말로, 오늘날의 연구자들이 한국 전통극의 특징을 논하면서 신명풀이를 중시하게 되었다. 조동일, 앞의 책, 279-280쪽.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표4-탈춤을 활용한 문화 교육(신명문화)

내용	교육 방안	단계
신명놀이	1) 학습자 문화에서 연극이나 가면극이 주로 어떤 결말로 이루어지는 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 한국의 민속극(탈춤)과 비교하기	중·고급
	2) 탈춤을 보면서 서로 갈등이 고조되었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하는지 찾아보고 이야기하기	중·고급
	3) 탈춤을 보면서 어떤 때에 갈등이 해소되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지 찾아보고 함께 이야기하기	초·중·고급
	4) 학습자 주변의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역할극을 만든 뒤, 갈등이 고조될 때마다 추임새를 넣고 춤을 추면서 서로의 갈등을 해소하기	중·고급

3) 탈의 상징성


한국의 탈은 표정변화가 다양하며 역할에 따라 그 특징이 개성 있게 잘 표현되어 있다. 할미 탈은 늙고 생기 없는 늙은이의 모습을 상징하며, 새색시 탈은 아름답고 젊은 여인의 모습을 나타낸다. 또한 새색시 탈에서 나타나는 메이크업을 통해 여성들이 미의 상징으로 여기는 조건을 파악할 수 있으며, 말뚝이 탈은 친한 신분과 호탕한 성격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은 신분과 역할에 따른 탈의 상징을 표현해준 것이라 볼 수 있다.

한국의 탈은 다른 나라의 탈과 다르게 표정이 아주 풍부하고 색깔과 모습에서 인물의 성격을 읽을 수 있다. 표정이 없는 가면은 자신을 은폐하고 감추려는 탈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으나, 한국은 탈을 씌으로써 자신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인물의 특성과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의 탈과 중국, 일본 및 여러 나라 탈의 표정을 보면서 ‘탈’이 ‘드러냄’의 상징인지 ‘은폐’의 상징인지에 대해 서로의 탈의 표정을 비교하여 상징성을 살펴볼 수 있고, 한국의 문화와 학습자 문화에서 탈이 상징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탈의 모양을 보면서 여성을 상징하는 얼굴형, 남성을 상징하는 얼굴형, 미인형의 기준 등과 한국인의 골격을 추측할 수 있으며, 학습자 문화에서도 ‘탈’의 형태, 모양을 통해 미인의 기준, 남성 상징의 기준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문화 교육의 시간이 될 것이다.

탈의 색깔을 보면, 대체로 원색적이고 다양하다. 이러한 탈의 원색성은 가면을 착용하는 인물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탈은 주로 검은색·붉은색·흰색·황색·청색의 5가지 색을 중심으로 사용되는데 이것은 음양오행사상을 기초로 하기 때문이고, 붉은색은 용맹과 힘, 정열과 쟁취를 의미하며, 흰색은 순결, 검은색은 나태함과 노쇠함, 절망과 죽음을 의미하고, 황색은 나약함과 이별을 상징하며, 청색은 하늘과 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냉정하고 차가운 느낌을 전해준다. 중국의 탈은 적색·흑색·백색·청색·얼룩색의 5가지 색상을 사용하는데, 적색은 정의, 흑색은 용기, 백색은 충성을 다하지 않는 대신을 의미하고, 청색은 용감하지만 지혜가 부족한 남성을, 얼룩색은 독특한 성격을 지닌 사람을 상징한다고 한다. 이렇게 각 나라마다 탈에서 사용되는 색깔의

표5-탈춤을 활용한 문화 교육(상징성)

내용	교육 방안	단계
상징성	1) 한국 탈의 모습과 학습자 문화에서 볼 수 있는 탈의 모습을 서로 비교하고 표정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하기 ¹⁴⁾	초·중·고급
		
	① 제시된 탈의 모양이 왜 다른지, 무엇으로 만들었는지에 대해 추측하고 이야기하기 ② 탈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각 사람의 특징을 표정에서 찾아보기	
	2) 학습자 문화의 '탈'은 주로 어떤 색깔을 사용하고 있는지, 색깔이 의미하는 상징성에 대해 이야기하기 예) 한국: 붉은색(정열, 용맹), 검은색(나태함, 절망과 죽음), 흰색(순결), 청색(냉정하고 차가움), 황색(나약함과 이별)을 의미	중·고급
	3) 탈의 모습을 보고 성격을 추측하여 이야기하기	초·중·고급
 () () () ()		
4) 탈은 나무, 종이, 바가지로 만들 수 있고, 학습자들이 주로 보는 나무탈의 대표적인 것은 하회탈이다. 학습자들은 무엇으로 만든 탈을 좋아하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취향을 이야기해보고, 학습자 문화에서는 주로 어떤 재료로 탈을 만드는지에 대해 서로 이야기해보기	초·중·고급	
5) 학습자들이 원하는 표정의 탈을 직접 만들어보기	초·중·고급	

의미가 다르다. 이러한 색의 상징이 무엇인지 파악한다면, 각 문화에서 드러나는 사람들의 특성과 색이 상징하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 서로의 문화에 대해 더 열린 마음으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으며, 색에 대한 상징을 통해 문화적 차이와 공통점도 느낄 수 있어 흥미로운 수업이 될 것이라 본다.

4) 비언어적 표현 행위

탈춤에서 보이는 몸짓은 과장된 동작으로 구성되어 관중들에게 극의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춤을 통해 관중과의 친근감, 교감을 느끼게 하여 탈춤을 자연스럽게 흥미롭게 이해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탈춤의 신명나는 몸동작은 학습자에게 경계를 풀어주며, 한국 문화에 일체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요소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 힘을 불러일으켜 한국 문화에 약간의 이질감을 느꼈던 학습자들도 자연스럽게 함께 어우러져 하나가 됨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김영순·김정은(2005)은 봉산탈춤의 노장과장에 나타난 춤동작을 통해 비언어적 행위의 기능을 살펴보았는데, 탈춤의 꼬덕이고, 가로로 짓는 고갯짓에서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긍정과 수용, 부정과 거절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과 더 나아가 몸짓언어의 과장된 표현에 따라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탈춤의 대표적 기능인 춤동작을 통한 몸짓언어에 대한 교육은 초급학습자부터 고급학습자에 이르기까지 학습자의 숙달도에 따라 여러 가지 다양한 몸짓언어에 대한 의미 교육이 가능하다. 또한 언어적 행위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행위를 통해 동작의 반복과 강도에 따라 전달하고자 하는 몸짓언어의 기능이 다르다는 것을 학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비언어적 행위는 목소리와 동작에 의해 전달되는 것으로 몸짓언어가 언어표현보다 더욱 정확하고 감정을 숨길 수 없다는 것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탈춤을 통해 비언어적 표현 요소를 학습한다면 학습자들이 춤을 추면서 자신의 감정에 대해 솔직한 몸짓언어를 표현하여 흥미롭게 학습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14) <http://cafe.daum.net/jangchulgi/FCth/54>에 있는 사진을 인용하였음을 밝힌다.

‘넓고 다양한 문화를 낫게’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민속극을 활용한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먼저 탈춤이 한국어 교육에서 어떻게 학습자들에게 제시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탈춤’, ‘가면극’에 대해 언급한 한국어 교재를 살펴보았으며, 한국어 교재에서 주로 제시한 명칭은 ‘탈춤’이 가장 많았고, 용어에 대한 언급이나, 유래와 특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한국어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어휘 교육에 대한 교육 방안을 살펴보았다. 한국의 탈춤은 민족의 혼과 정신,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다양한 문화 교육을 하기에 적합한 요소를 많이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탈춤이 제시하는 언어적 유희 표현을 통해 학습자의 숙달도에 맞게 어휘 교육을 구성할 수 있다. 특히 동음이의어·유의어·속담·연어 등을 학습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고급 이상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반복법, 대조법, 반어법, 의성·의태법 등의 표현기법을 통하여 고급스럽고 풍부한 언어표현을 구사할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문화 교육에 대한 교육적 요소와 방안을 살펴보았다. 문화 교육으로는 한국의 역사적 상황, 가정, 사회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갈등구조를 설명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갈등구조의 분석을 통해 국가별 갈등의 대상과 흐름을 함께 비교할 수 있고, 한국인의 정서를 보여주는 ‘恨(한)’과 ‘神明(신명)’에 대해 학습자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다. 한국어 교육에서 한국인의 정서와 관련된 ‘한’은 흔히 접할 수 있지만 ‘신명’의 정서에 대해서는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고 제시할 수 있는 교육방법도 많지 않다. 따라서 탈춤을 활용한다면, 한국 문화의 특징인 ‘신명’의 정서에 대해 알릴 수 있고, 탈춤을 추는 동작에서 하나가 되자, 모든 갈등구조가 춤으로 완화된다는 것을 주지시킨다면, 갈등해소와 화해의 문화를 학습자들에게 자연스럽게 흥미롭게 이해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많은 외국인들이 흥미를 느끼는 한국 탈의 다양한 표정변화를 통해 탈이 보여주는 형태와 색깔의 상징성과 한국의 문화적 상징에 대해 학습할 수 있으며, 탈춤에서 볼 수 있는 반복적이고 강한 동작을 통해 몸짓언어의 기능에 대해 학습할 수 있다. 비언어적 행위는 목소리와

동작에 의해 전달되는 것으로, 몸짓언어가 언어표현보다 더 정확하고 감정을 숨길 수 없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가끔 학습자 문화와 서로 다른 몸짓언어로 인해 서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탈춤의 동작을 통하여 서로 다른 비언어적 표현에 대해 학습하고, 서로의 문화에서 다르게 표현되는 몸짓언어에 대해 확장하여 학습한다면, 더욱 자연스럽게 비언어적 행위에 대해 학습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탈춤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교육적 요소는 많이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지 않다. 이것은 탈춤에 제시된 어휘가 너무 어렵고 광범위하여 교육에 활용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향 때문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학 작품을 활용한 교육이나 고시대의 작품을 활용하여 문화 교육을 할 경우에는 어휘를 모두 한국어 학습자의 단계와 수준에 맞는 어휘로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탈춤에서 제시된 어휘를 학습자들의 수준과 단계에 맞게 수정하여 자료를 만든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현재 한국어 교육에서는 주로 '탈춤'을 한국어 교재에 용어만 언급하고 있거나, 간단한 설명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언어문화를 추구하는 한국어 교육과 문화 교육의 현 상황에서 탈춤은 어휘와 문화 교육을 함께 학습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따라서 앞으로 탈춤의 교육적 요소를 활용하여 한국어와 한국의 문화를 교육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방안에 대한 한국어 교수자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영순·김정은, 「봉산탈춤 노장과장에 나타난 비언어적 의사소통 연구」. 『언어와 문화』 제1권 2호, 2005, 63-80쪽.
- 김영순·정미강, 「한국문화 교육을 위한 ‘은율탈춤’ 스토리텔링 교수법」. 『언어와 문화』 제3권 1호, 2007, 25-48쪽.
- 성기철, 「한국어 교육과 문화 교육」. 『한국어교육』 제12권 2호, 2001, 111-136쪽.
- 양민정, 「한국어 문화교육의 세계화와 탈춤의 활용방안 연구」. 『세계문화비교연구』 제24집, 2008, 251-281쪽.
- 우리마당터, 『탈춤1 민속학술자료 총서』. 서울: 도서출판 놀이마당 터, 2001.
- 이석규, 「봉산탈춤의 언어 사용 연구」. 『인문언어』 제6집, 2004, 265-291쪽.
- 전경옥, 『한국가면극과 그 주변 문화』. 서울: 도서출판 월인, 2007.
- 조동일, 『탈춤의 원리 신명풀이』. 서울: 지식산업사, 2006.
- 차용준, 『전통문화의 이해』. 전북: 전주대학교 출판부, 2000.
- 허지윤, 「가면극 지도 방안 연구 - 봉산탈춤을 중심으로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말이 트이는 한국어II』.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서울: 이화여자 대학교 출판부, 1999.
- 『배우기 쉬운 한국어 5』. 성균어학원,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개정판2006.
- 『서강한국어 5B』.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 서울: 도서출판 하우, 2007.
- 『한국어 3, 4』.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8.
- 『한국어 5, 6』.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9.
- 『한국어 2, 4』. 건국대학교 언어교육원, 서울: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9.
- 『한국어 초급II』.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부, 2001.

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한국어 교육에서 활발하게 연구되지 않고 있는 탈춤을 통해 어휘 교육과 문화 교육을 활용한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탈춤은 민중의 연극이며, 민중의 처지에서 사회를 바라보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사회의 민중의식의 흐름과 그 시대의 역사적 상황을 함께 이해할 수 있는 장르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생각과 가치관은 민중에 의해 전승되기 때문에 탈춤을 통해 한국인들의 생각, 가치관, 민중의식, 사회적 상황에 따른 생각을 이해한다면 한국의 문화에 대해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 본다.

탈춤을 활용하여 한국어 교육을 할 경우, 한국어 어휘 교육 및 다양한 문화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동음이의어, 유의어, 속담, 관용어 및 연어표현과 다양한 표현기법을 배울 수 있어 어휘량을 늘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고급스러운 한국어 표현을 흥미와 더불어 익힐 수 있다.

문화 교육으로는 한국의 사회, 가정에서 주로 일어나는 갈등구조를 통해 한국인의 역사적 흐름에 따른 갈등구조를 이해할 수 있으며, 탈춤을 추는 동작에서 하나가 됨을 느끼고 모든 갈등구조가 춤으로 완화되는 한국인의 특징인 신명풀이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탈이 보여주는 색깔과 생김새의 상징성을 통해 한국의 문화적 상징에 대해 알 수 있으며, 탈춤의 강한 동작에서 보이는 비언어적 행위에서 강한 통쾌감과 흥을 느껴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를 엿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해 흥미롭고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투고일 2010. 9. 10.

수정일 2010. 11. 3.

게재 확정일 2010. 11. 9.

주제어(keyword) 한국어와 문화 교육(Korean and culture education), 탈춤(Mask Dance), 신명풀이(Sinmyeong-Puli), 비언어행위(non-verbal action), 민속극(Folk Drama)